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45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6.12.~2025.06.18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대통령(이재명), 주민투표, 대응, 평가, 버스
경제·관광	여행(관광객), 일본, 크루즈, 항공, 청년
지역·사회	구조, 관광객, 불법 마을, 도로

※ 분석 기간 : 25.06.12.~25.06.18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대통령 (이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 및 제주 현안 반영 기대 강화 - 민생 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검토 논의 활발 - 3대 특검법 국회 통과 및 특별검사 신속 지명
	주민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 정부 의지 확인이 최대 관건으로 부상 - 기초단체 설치 논의, 의회 내 이견 상존 및 혼란 지속 - 헌법적 가치 기반의 기초단체 설치 당위성 강조 및 정책적 제안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대폭 강화 및 스마트 도시 전략 모색 - 공공기관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실태조사 적극 추진 - 폐기물 처리 시설 봉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신뢰 회복 노력 집중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운영 적자 심화로 인한 요금 인상 불가피성 부각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의 수익 구조 취약성과 폐쇄적 인사 관행 비판 - 지방보조금 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T 서광로 구간 개통으로 인한 버스 이동 속도 대폭 향상 - BRT 섬식정류장 도입에 따른 도민 불편 및 안전 우려 지속 제기 - 청소년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본격 추진 및 확대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여행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 제주 여행주간 운영 및 참여 기업 모집 -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흥행으로 관광객 급증 - 단체관광 인센티브 정책 및 개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 관광객 회복세 및 유치 노력 - 제주-도쿄 직항노선 복항 1주년 및 확대 논의 - 제주-일본 경제·관광 교류 활성화 토론회 개최
	크루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준모항 크루즈 운항 확대 및 인프라 확충 계획 -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마케팅 강화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공항 여객 수송 실적 회복 및 노선 확대 - 항공사 프로모션 및 마일리지 특별기 운영 - 제주공항 안전 강화 및 시설 개선 노력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 청년 학교 프로그램 및 창업 지원 - 청년 금융 교육 및 재형저축 지원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온열환자 발생 및 이송 - 닥터헬기 전용 격납고 완공 및 효과 - 해양 수난사고 발생 및 구조 활동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관광영업 적발 및 단속 강화 - 해안로 안전 점검 및 사고 예방 활동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전환 논란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 침 시술 의료법 위반 구속 - 후박나무 대규모 박피 현장 적발 - 해상 풍력 개발 관련 환경오염 우려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폐원 증가 및 돌봄 체계 변화 - 지하수 질산성질소 오염 심화 및 개선 시급 - 주민 참여 마을 정원 조성 사업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토바이 사고 증가 및 사망자 발생 - 차량 연쇄 추돌 사고 발생 - 빗물받이 관리 미흡 및 침수 우려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6월 12일~6월 18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1214건임
 - 정치·행정 분야 488건, 경제·관광 322건, 지역·사회 404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대통령(이재명), 주민투표, 대응, 평가, 버스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대통령 (이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 및 제주 현안 반영 기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16일 공식 출범했으며, 향후 60일에서 최장 80일간 새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국정과제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이 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며, 새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실정 ·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경제2분과 위원에 임명되었으며, 김경호 제주대학교 교수와 이동진 상명대학교 교수 등 제주 출신 인사들이 국정기획위에 합류하여 제주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음. 이는 제주
-------	--------------	---

	<p>대통령 (이재명)</p>	<p>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및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 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검토 논의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음.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포함될 예정 ·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요청되었으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이는 세수 결손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 경정을 결정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 - 3대 특검법 국회 통과 및 특별검사 신속 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음. 이에 따라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 지명 · 특검 지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특검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
<p>정치·행정</p>	<p>주민투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 정부 의지 확인이 최대 관건으로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이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단체 설치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중요한 과제 · 주민투표법상 절차와 남은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10월까지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야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오 지사는 정부의 신속한 의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기초단체 설치 논의, 의회 내 이견 상존 및 혼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혼란과 우려가 제기되었음. 일부 의원들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음 · 주민투표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주민투표 결과가 압도적이지 않을 때의 법률 개정 동력 상실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음. 이는 향후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하는 지점 - 헌법적 가치 기반의 기초단체 설치 당위성 강조 및 정책적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음. 이는 단층제 행정체제가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주민 참여 및 민주성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에 근거 · 학술대회에서는 단층제 행정 구조가 제주 고유의 문화 공동체 기반을 해체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진단과 함께, 제도의 문제점을 환류시켜 계층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헌법적·정책적 제안이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행정</p>	<p>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대폭 강화 및 스마트 도시 전략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무더위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목표로 설정 · 김승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제주가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관광 등 다양한 정책의 유기적 연결 필요성을 제안했음. 또한 고령친화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 장기 전략도 제시 - 공공기관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실태조사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16일부터 30일까지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성평등 문화확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이 간담회는 각 기관과의 현안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공공 부문의 성평등 문화를 선도하기 위함임 ·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실효성 높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이는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폐기물 처리 시설 봉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신뢰 회복 노력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동북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와 관련하여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밝혔음. 이는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 · 오 지사는 폐열 지원 사업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문서화된 약속은 없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마을과 행정 간의 신뢰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중히 당부
	<p>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운영 적자 심화로 인한 요금 인상 불가피성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공공체육시설 170곳의 연간 운영비가 1000억원을 넘지만, 6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지방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 특히 수영장 13곳의 연간 적자가 70억원에 달하며, 이는 2004년 이후 동결된 입장료(2000~3000원) 때문으로 분석 · 제주도는 공공 수영장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균 입장료를 6648원으로 인상해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 도의회에서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정 로드맵 마련 촉구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의 수익 구조 취약성과 폐쇄적 인사 관행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하중 등 안전성 문제로 수익성이 높은 대형 대중 공연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어 만성적인 수익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는 MICE 산업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수익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실정 · 고태민 도의원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ICC제주의 전무이사가 모두 한국관광공사 출신 인사로 임명되어 폐쇄적 인사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p>평가</p>	<p>공개채용 원칙에 따른 전문가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상황</p> <p>- 지방보조금 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체육회 회계 직원의 보조금 횡령 사태를 계기로, 포괄보조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상위법에 의거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도정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되었음. 이는 보조금 횡령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 · 제주도는 대학교수, 회계사, 건설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제6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위촉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 위원 2명을 영입하여 젊은 세대의 정책 참여 통로를 확대
<p>정치·행정</p>	<p>버스</p>	<p>- BRT 서광로 구간 개통으로 인한 버스 이동 속도 대폭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월 9일 개통한 제주시 서광로 BRT 구간에서 출근 시간(오전 8시~9시)대 버스 이동 속도가 양방향에서 평균 43%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광양에서 신제주 방면은 53% 향상되어 큰 효과 취득 · 일반 차량의 이동 속도 또한 33% 빨라졌으며, 이는 서광로 구간 차량 유입량 감소(8.1% 감소)와 지속적인 신호 주기 조정의 결과로 분석됨. 이는 중앙전용 차로 방식이 가로변 전용차로보다 이동 속도 개선에 더 효과적임을 입증 <p>- BRT 섬식정류장 도입에 따른 도민 불편 및 안전 우려 지속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에서는 섬식정류장이 교통약자에게 불편하고, 굴곡진 차로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버스 이용객들은 양문형 버스의 부족한 좌석 문제, 환승 불편, 정류장 위치 혼란 등 다양한 불편 사항을 호소 · 일부 의원들은 BRT 고급화 사업이 정류장 외형만 바뀐 것에 불과하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표했음. 제주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안내원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안내 표시를 보완하는 등 노력 지속 <p>- 청소년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본격 추진 및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8월 1일부터 제주 지역 중·고교생을 포함한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들의 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화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협약을 통해 재원이 마련 · 버스 요금 무료화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확대되면서, 제주도민 중 버스 요금 무료 대상 비율이 36%로 크게 높아질 예정임. 이는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여행(관광객), 일본, 크루즈, 항공, 청년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p>경제·관광</p>	<p>여행 (관광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 제주 여행주간 운영 및 참여 기업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관광 수요를 촉진하고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름 제주 여행주간'이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10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이에 참여할 기업을 6월 22일까지 모집하는 중. 이 특별 여행주간은 성수기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고 내국인 관광 활성화 및 관광 내수 선순환을 위한 붐업을 목표로 함 · 이 기간 동안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제주시 한림읍, 한경면 등 제주 서부 권역에 해당하는 골프장업, 관광지업, 숙박업, 음식점 등 관광업 사업체에서 자체 할인 프로모션 정보를 입력할 경우,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Visit Jeju) 및 제주국제공항 내 여행주간 부스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 신청은 제주 여행주간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사업체 정보와 자체 할인 프로모션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흥행으로 관광객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국내외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여객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음. 이달을 기점으로 제주공항 이용객 수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공항의 전체 여객 수송 실적은 전년 대비 약 98%
--------------	---------------------	--

	<p>여행 (관광객)</p>	<p>수준까지 회복되었고, 특히 5월 황금연휴 기간에는 제주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51만 6천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을 뛰어넘어 코로나19 이후 월간 기준으로 여객 수를 완전히 회복. 6월 6일 현충일에는 하루 9만 3천 명을 수송하며 2019년 이후 일일 최다 수송 기록을 경신</p> <p>- 단체관광 인센티브 정책 및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증가하는 단체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 단체는 물론 도내 여행사 모객 단체, 수학여행단, 뱃길 단체, 협약·자매결연 단체, 동창·동문회, 동호회·스포츠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최근 지원 방식이 전면 개편되어, 사전 신청한 단체에 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항공권 확인 후 개인별로 '탐나는전'을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도내 여행사나 수학여행단의 경우 일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며, 이 경우 도내 숙박시설과 관광지, 음식점 등을 반드시 방문하도록 기준을 설정
<p>경제·관광</p>	<p>일본</p>	<p>- 일본인 관광객 회복세 및 유치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7만 8734명으로 집계되어, 전년(5만 3482명) 대비 47.2%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이는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의 7638명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 올 들어 통계가 확정된 지난 4월까지도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1만 7745명으로 전년 동기(7043명) 대비 152%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나리타 직항노선 복항 1년을 맞아 일본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6월 16일 일본 도쿄 힐튼 호텔에서 '2025년 도쿄 제주관광설명회'를 개최. 이 행사에는 제주관광협회와 도내 여행사·숙박업체 등 12개 관광업체가 참가하고, 일본 측에서는 24개 대형 여행사, 랜드사, 9개 항공사, 3개 크루즈 선사 및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언론 12개사가 참석 <p>- 제주-도쿄 직항노선 복항 1주년 및 확대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와 도쿄를 잇는 항공편은 부산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1985년 첫 개설되었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여파로 중단. 이후 4년 6개월 만인 2024년 7월 복항하여 현재 주 3회(수·금·일) 운항 중 · 이번 관광설명회는 직항노선의 안정적인 운항과 일본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 회복을 견인하고, 양국 관광업계 간 교류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튿날인 6월 17일에는 오사카를 방문하여 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 및 항공사, 여행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오사카 노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 노선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p>- 제주-일본 경제·관광 교류 활성화 토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상공회의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한일친선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2025년 제주-일본 경제·관광 교류활성화 토론회'가 6월 18일 호텔난타 제주 연회장에서 열림. 이 토론회는 제주 로컬 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된 자리 · 주제 발표에서 김하원 (주)해녀키친그룹 대표는 제주의 해녀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극장식 레스토랑 '해녀의 부엌'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동원F&B, 무신사 등

	일본	과의 협업을 통한 밀키트 및 팝업스토어 사례를 들어 제주 로컬 상품의 전국적·글로벌 경쟁력 가능성을 보여줌. 일본 도쿠시마현 서울 주재원 니시구치 사토시는 도쿠시마현의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세븐일레븐, 하림, 이스타항공과의 협업 사례를 언급
경제·관광	크루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준모항 크루즈 운항 확대 및 인프라 확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제주에서 준모항 운항을 시작했으며, 이는 지난달 아도라 매직시티호에 이어 두 번째 준모항 선박으로, 관광객이 모여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는 거점 항구 역할을 함. 모항인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코스타 세레나호는 6월 13일 서귀포시 강정항에서 승객 330명(내국인 325명, 외국인 5명)을 태우고 일본 후쿠오카항으로 출발 · 이번 시범 운항은 6월 13일, 17일, 2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약 1000명의 승객이 탑승할 예정이고, 시범 운항 후 정규 운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제주도는 안정적인 준모항 운영을 위한 크루즈 터미널 내 위탁수화물 처리 시설 등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국적 선사들이 제주에서 준모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및 마케팅에 집중할 예정 -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2025 Asia Cruise Forum Jeju)이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 아시아 대표 크루즈 네트워크 행사인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크루즈 전문가, 선사 관계자, 항만기관 및 관광업계 등 11개국 6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 · 올해 포럼은 '2035 아시아 크루즈의 비전: 9%에서 20%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열리며, 크루즈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아시아 크루즈 시장 확대 전략, 제주의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 특히 제주가 추진 중인 크루즈 준모항 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도 심도 있게 다룰 계획 -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코스타 세레나호의 준모항 운항에 따른 원활한 출입국 지원과 장애요소 해소를 위해 출입국관리소, 세관, 검역소(CIQ) 및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진행 중 · 이번 크루즈 준모항 추가 진행으로 글로벌 선사들이 제주의 준모항 가능성과 매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서틀형 준모항 등 고객 중심의 다양한 준모항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 또한, 제주 항만시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업도 추진 중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공항 여객 수송 실적 회복 및 노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공항의 여객운송실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인기로 주요 촬영지인 제주도가 성지순례 코스로 떠오르면서 4월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되었고, 5월 황금연휴 기간에는 전년 대비 100.9%를 돌파하며 코로나 19 이후 월별 기준 처음으로 전년 수준을 넘어선 실적을 기록 · 항공 노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난 4월에는 티웨이항공과 타이거에어타이완이 대만 가오슝 노선을 재개했고, 6월부터는 타이중 노선도 신규 개설하여

경제·관광	항공	<p>대만 3대 도시와 제주를 잇는 노선 체계를 완성. 오는 8월 15일부터는 싱가포르 노선도 주 5회 신규 운항되며, 9월부터는 매일 운항할 예정</p> <p>- 항공사 프로모션 및 마일리지 특별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웨이항공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제주관광공사와 함께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주 여름 여행 탐나는 티켓 이벤트'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김포·대구·청주·광주에서 출발하는 제주 왕복 항공권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선착순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 · 대한항공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3개월간 제주-김포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우는 '삼삼한 주말 마일리지 썸머 333 페스타'를 진행. 7월 4일부터 20일까지, 8월 8일부터 24일까지, 9월 5일부터 21일까지 총 3개월간 매달 3주씩 금·토·일 3일 동안 총 54편의 특별기를 운영할 계획 <p>- 제주공항 안전 강화 및 시설 개선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역본부와 6월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공항 이동 지역 차량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를 통해 제주공항 내 운행 차량 안전 검사, 이동 지역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렌터카 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을 높일 기대 ·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리는 제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가 6월 16일 제주국제공항 내에 개소, 기존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계류장에서 기상 요인으로 인한 출동 지연 및 기각 사례가 발생했던 어려움 해소. 공항 내 상주하게 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청년	<p>-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경기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경력직을 더 많이 채용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고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 ·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새롭게 마련된 이 사업은 기존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단시간 근무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제주에 소재하며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주 30시간 이하의 청년 노동자(고용보험 취득신고자)를 올해 신규 채용한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근무 시간당 5000원(일 최대 2만원, 월 최대 40만원)을 4개월간 지원 <p>- 청년 학교 프로그램 및 창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청년센터는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지역특화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같이 놀아 볼래요?'라는 제주어 'ㄱ치 놀아 보게 마쌌'이라는 타이틀로 청년 학교 3차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 중. '제주문화 살리기'를 주제로 제주문화의 보호 및 육성의 핵심 주체로서 제주청년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위축된 창업 생태계의 회복과 제주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 성장 지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참여 중인 12개 유망 청년창업기업은 메이크공육사, 바인벤처스, BNK벤처투자 등 국내 주요 투자 컨소시엄 6곳으로부터 제품시장맞춤형(PMF) 컨설팅, 기업별 성장 단계 진단, 1:1 투자사 연계 상담 등 실질적인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관광	청년	<p>논의 기회 제공 받음</p> <p>- 청년 금융 교육 및 재형저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NH농협은행 제주기업센터지점과 협력하여 6월 13일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 참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3기 금융 교육을 실시. 이 교육은 청년 내 집 마련 전략, 청년 자산관리 미래 설계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40명의 청년 근로자가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얻음 · 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은 생활 경제의 기초 지식 함양, 경제적 사고력 증진, 합리적인 소비생활 설계 능력 배양 등 재정 관리 및 소비·지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식과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구조, 관광객, 불법 마을, 도로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구조	<p>- 제주 온열환자 발생 및 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일 오후 5시 22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밭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당시 체온은 39.6℃, 의식이 혼미한 상태 · 17일 오후 3시 22분경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서 나무를 심던 40대
-------	----	--

	구조	<p>남성 B씨가 온열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인근 의료시설로 이송되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닥터헬기 전용 격납고 완공 및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가 도입 2년여 만에 제주국제공항 내 전용 격납고를 확보하여 16일 개소식을 가졌으며, 총 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774.38㎡ 규모로 조성 · 기존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계류장에서 야외 계류로 기상 요인에 따른 출동 지연 및 기각 사례가 발생했으나, 격납고 마련으로 출동 골든타임 확보 및 운영 효율성 증대가 기대 - 해양 수난사고 발생 및 구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주말과 휴일에 제주 바다에서 총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구조되는 등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특히 지정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 요원 및 수상구조대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이어져 주의가 요구 ·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귀포시 대정 앞바다에서 119항공대, 서부소방서, 해양수산국 합동 수상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
지역·사회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관광영업 적발 및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자치경찰단이 최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영업 3건을 적발하고 여름 관광 성수기 이전에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무등록 여행업 4건, 유상운송 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총 37건의 불법 관광영업을 단속 · 중국인 A씨(34)는 지난달 제주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태워 불법 유상운송(11만원)하다 적발되었고, A씨는 처음에는 친구 관계를 주장했으나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 확인 후 위반 사실을 인정 - 해안로 안전 점검 및 사고 예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해안로 전 구간(약 253km)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 주요 점검 장소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진 관광객 밀집 지역(하도 해안, 오조포구, 한림, 금능 등)이며, 추락 방지 난간 노후 여부, 위험지역 출입 통제 및 안내 표지 상태, 보행로 침하 및 균열 여부 등을 집중 점검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전환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정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 방문객에게 지역화폐 지급 및 렌터카 비용 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체 관광객에게 1인당 3만원, 개별 여행객에게 최대 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할 계획 · 이는 당초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환경보전분담금' 또는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과 대치되는 정책 방향 전환으로 논란이 있으며, 도지사는 관광객 급감 상황에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힘

지역·사회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 침 시술 의료법 위반 구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자치경찰단이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 · A씨는 2022년부터 약 4년간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 환자 120여 명에게 1회당 5만원을 받고 침 시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약 2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고 과거에도 동일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후박나무 대규모 박피 현장 적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단체 제주자연의벗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임야에서 후박나무 43그루의 껍질이 벗겨진 대규모 박피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당국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 · 이 지역은 생태계 보전 지구 5등급에 해당하여 식물 채취 시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해당 박피 작업에 대한 신고나 허가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 행위로 추정 - 해상 풍력 개발 관련 환경오염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건립 공사가 주민 반대로 3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준설토 투기장 건립이 환경오염과 해상가두리 양식장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 ·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한림읍)은 한림항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준설토 투기장 완료 후 어장 환경 대응 시설 건립을 촉구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폐원 증가 및 돌봄 체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어린이집 수가 저출산 여파로 2013년 604곳에서 현재 378곳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105곳(28%)은 정원 대비 영유아 총원률이 50% 미만인 상황 ·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노인 요양원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제주 지역 영유아(0~6세) 인구는 지난 10년간 32.8% 감소 - 지하수 질산성질소 오염 심화 및 개선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서남부지역 지하수 관정에서 질산성질소 농도가 지하수 환경 기준(10mg/ℓ)을 초과했으며, 도내 일반 지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 · 주요 오염원으로는 채소 재배와 양돈장 등이 밀집한 서남부 지역에서의 화학 비료와 축산 분뇨가 지목되었으며, 제주도는 비료 과다 살포 방지를 위해 '표준 시비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 중 - 주민 참여 마을 정원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에서 '벨롱벨롱한 별빛정원', '영산홍 정원' 등 4개 마을 정원이 '2025년 도민 참여 마을 정원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마을마다 특색 있는 정원이 조성될 예정 · 선정된 마을 공동체는 각 850만 원 범위 내의 재료비와 정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아 정원을 조성하며, 이는 정원 문화 확산과 주민 소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지역·사회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토바이 사고 증가 및 사망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배달 성장과 함께 증가했던 오토바이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최근 제주에서 이틀 새 2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는 등 이륜차 사고에 대한 우려가 여전 · 지난 15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50대 남성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했으며, 다음날인 16일에는 제주시 구좌읍에서 20대 남성이 전봇대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 차량 연쇄 추돌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일 낮 12시 33분경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도로에서 렌터카 2대와 전기차 1대가 연쇄 추돌하여 탑승자 4명(모두 20대 관광객)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 18일 오후 4시 10분경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SUV 2대가 추돌하여 탑승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 - 빗물받이 관리 미흡 및 침수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빗물받이 14만 8117개 중 일부가 제때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장마철을 앞둔 점검 결과 침수 위험 구역 30곳 중 19곳이 쓰레기, 담배꽂초 등으로 막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 · 관계 당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행정 인력과 마을 단위 순찰대 투입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약속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